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696호, 제3697호, 제369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II.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총괄

-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 역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결산 승인안은 경제실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결산 승인안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현액 3,982억 1천 6백만원, 징수결정액 1,301억 1천 5백만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1,295억 3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6천 4백만원이며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은 2천 2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7,307억 6천 8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083억 9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4천 4백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3천 1백만원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3,944억 9천 4백만원, 징수결정액 1,263억 9천 3백만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1,258억 8백만원(99.5%), 미수납액은 5억 6천 4백만원이며,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은 2천 2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7,028억 1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822억 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8천 8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8억 2천 6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37억 2천 2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37억 2천 2백만원으로 전액 수납함.
 - 세출예산현액 279억 4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61억 8천 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천 6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분야별·부문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는

- 사회복지 분야(노동 부문) 세출예산현액 2,543억 1천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397억 3천 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2천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5천 5백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세출예산현액 4,393억 7천 6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337억 1천 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천 8백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1억 9천 5백만원임.
- 과학기술 분야(과학기술일반 부문) 세출예산현액 75억 6천 1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4억 3천 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천 9백만원임.

- 기타 분야 세출예산현액 15억 7천 3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억 2천 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천 6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세출예산현액 279억 4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61억 8천 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천 6백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임.

3.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년도 경제실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6,575만 3천원 중 1억 6,575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원임.

4. 기금결산 승인안

- 경제실 소관 기금은 총 1개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604억 3천 8백만원, 사용액은 817억 6천 8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361억 9천 2백만원임 (전년도말 조성액 575억 2천 1백만원 대비 37.1% 감소).

III.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982억 1천 6백만원으로, 1,301억 1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95억 3천만원을 수납하고(수납률 99.6%), 정리보류액은 2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6천 4백만원임.
- ▶ 일반회계의 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연도 수입이며, 징수결정액 606억 9천 9백만원 대비 99.0%인 601억 1천 4백만원을 수납함.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매각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23억 6천 2백만원 대비 99.9%인 323억 3천 3백만원을 수납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기부금수입,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72억 2천 4백만원 대비 99.5%인 270억 7천 6백만원을 수납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징수결정액 2억 6천 8백만원 대비 82.4%인 2억 2천 1백만원을 수납함.

-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8억 4천 4백만원 대비 57.3%인 4억 8천 4백만원을 수납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655억 9천 4백만원을 전액 수납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 9천 9백만원을 전액 수납함.
-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7억 2천 2백만원을 전액 수납함.

< 2025년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98,216	130,115	129,530	22	564	99.6
일반회계 소계	394,494	126,393	125,808	22	564	99.5
세외수입	328,683	60,699	60,114	22	564	99.0
경상적 세외수입	203,210	32,362	32,333	-	30	99.9
재산임대수입	24,242	23,886	23,878	-	8	100.0
공유재산임대료	24,242	23,886	23,878	-	8	100.0
사용료수입	5,488	5,646	5,646	-	-	100.0
입장료수입	93	54	54	-	-	100.0
주차요금수입	656	586	586	-	-	100.0
기타사용료	4,738	5,006	5,006	-	-	100.0
사업수입	172,317	1,000	1,000	-	-	100.0
매각사업수입	171,602	-	-	-	-	-
기타사업수입	715	1,000	1,000	-	-	100.0
이자수입	1,164	1,831	1,809	-	22	98.8
기타이자수입	1,164	1,831	1,809	-	22	98.8
임시적 세외수입	124,944	27,224	27,076	-	148	99.5
재산매각수입	101,643	-	-	-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1,643	-	-	-	-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보조금반환수입	20,811	24,015	23,871	-	143	99.4
사도보조금등반환수입	7,778	8,951	8,821	-	130	98.5
지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70	3,208	3,208	-	-	100.0
위탁비반환수입	9,963	11,855	11,842	-	13	99.9
기타수입	2,489	3,210	3,205	-	5	99.9
기부금수입	40	37	37	-	-	100.0
그외수입	2,449	3,173	3,168	-	5	9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	268	221	-	47	82.4
변상금	-	0.6	0.6	-	-	100.0
변상금	-	0.6	0.6	-	-	100.0
과태료	15	230	209	-	21	90.9
기타과태료	15	230	209	-	21	90.9
환수금	-	38	12	-	26	30.6
부정이익환수금	-	38	12	-	26	30.6
지난연도 수입	513	844	484	22	339	57.3
지난연도 수입	513	844	484	22	339	57.3
지난연도 수입	513	844	484	22	339	57.3
보조금	65,657	65,594	65,594	-	-	100.0
국고보조금등	65,657	65,594	65,594	-	-	100.0
국고보조금등	65,657	65,594	65,594	-	-	100.0
국고보조금	64,331	64,331	64,331	-	-	100.0
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1,326	1,263	1,263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4	99	99	-	-	100.0
보전수입 등	154	99	99	-	-	100.0
보조금등반환금	154	99	99	-	-	100.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54	99	99	-	-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3,722	3,722	3,722	-	-	100.0
보조금	3,722	3,722	3,722	-	-	100.0
국고보조금등	3,722	3,722	3,722	-	-	100.0
국고보조금등	3,722	3,722	3,722	-	-	100.0
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3,722	3,722	3,722	-	-	100.0

- 2025년도 결산 결과 경제실은 당초 세입예산 3,982억 1천 6백만원보다 2,686억 8천 6백만원을 과소 수납하여 실제수납율이 32.5%에 불과한바, 이는 매각이 미확정된 DMC 랜드마크용지(F1·F2, 총 3만 7,262㎡) 와 DMC 홍보관용지(D4, 2,874㎡) 매각 수입을 무리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입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환급액

- 세입금 환급은 총 9건으로 수납총액 1,295억 5천 1백만원 중 환급액은 2천 1백만원(환급률 0.02%)이며, 세입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입장료 수입 1백만원, 기타사용료 4백만원, 기타이자수입 7백만원임.

< 세입금 환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환급건수	수납총액	환급액 계	세입과목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9	129,551	21.3	9.7	1.1	3.6	6.9

- 세입금 환급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 1건(7백만원), 납세자 착오 6건(4백만원), 기타 2건(1천 1백만원)임.

< 세입금 환급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환급사유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기타
환급건수	9	1	6	2
환급액	21.3	6.9	3.6	10.8

-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은 산업입지과의 G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시비 보조금 이자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부일 및 적용 이율 등의 재산정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7백만원이 환급된 것임.
- 보조금 및 위탁금 등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교부일, 반납일, 적용 이율, 산정 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정산 자료와 부과금액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환급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납세자 착오에 따른 환급은 일자리정책과의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중도 퇴거자 발생에 따른 환급 1건(14만원)과 창업정책과의 입주기업 조기졸업에 따른 창업지원시설 이용료 환급 5건(3백 50만원)으로 전액 기타사용료에서 발생하였음.
- 그러나 해당 사례들은 납부자의 착오에 의한 오납이라기보다는 숙소 중도 퇴거 및 입주기업 조기졸업 등 사용기간 또는 이용관계 변동에 따라 이미 수납한 사용료를 사후 정산한 것임.
- 따라서 이를 ‘납세자 착오’로 분류하는 것은 실제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환급사유 구분상 별도 분류가 어렵다면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세입금 환급사유를 입력·관리할 때에는 납세자의 단순 오납과 사용기간 변경 등에 따른 환급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환급 원인이 결산자료에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타 사유에 따른 환급은 산업입지과의 SETEC 내 청년취업사관 학교 임시 사용기간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환급 1건(9백 70만원)과 서울시립과학관의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입장료 환불 1건(1백 10만원)임.
- 이 중 SETEC 사용료 환급은 사용료 감면 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감면 대상과 적용기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 전 감면 여부와 적용시점을 명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환급과 행정처리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다. 정리보류액

- 정리보류액은 2천 2백만원으로, 동행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4대 보험료 환급액 환수,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등 6건의 징수권 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함.

< 정리보류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건수	금액	상세내역 및 사유
지난연도 수입	6	22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4대 보험료 환급액,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환수를 위해 부과했으나 시효완성정리로 인해 정리보류액 발생

- 정리보류는 징수결정된 세입 중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을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 발생 자체가 곧 위법하거나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이번 정리보류액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4대 보험료 과납에 따른 환급액 중 자치구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등이 적기에 환수되지 못한 채 시효완성(5년)으로 정리된 것임.
- 경제실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사후관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 환급금 정산 및 반환 대상 세입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 특히 경제실의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450%(1천 8백만원) 증가한바 서울시는 일자리 사업 등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담당자 변경이나 사후 관리 소홀로 반환 대상 세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환급금 확인, 채권 관리, 담당자 인계·인수 및 시효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지난연도 수입	22	4	0

라.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5억 6천 4백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3억 3천 9백만원(6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3천만원(23.0%), 부정이익환수금 2천 6백만원(4.6%), 기타이자수입 2천 2백만원(3.9%) 등에서 발생하였음.
-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타 3억 2천 7백만원(58.0%), 납세태만 2억 2천 3백만원(39.5%), 납기미도래 1천 4백만원(2.5%) 등임.

< 미수납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미수납액	사유별				
		납세태만	폐업또는 부도	소송계류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564	223	0	0	327	14
공유재산임대료	8	0	0	0	0	8
기타이자수입	22	5	0	0	17	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0	93	0	0	37	0
위탁비반환수입	13	0	0	0	13	0
그외수입	5	4	0	0	1	0
부정이익환수금	26	0	0	0	26	0
기타과태료	21	15	0	0	0	6
지난연도 수입	339	105	0	0	234	0

- 이 중 다음 회계연도에 수납이 가능한 납기미도래를 제외하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기타 및 납세태만 사유에서 발생하고 있음.

< 사유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미수납액 발생사유	미수납액		
	2025년	2024년	2023년
계	564	843	849
납세태만	223	207	136
폐업 또는 부도	-	101	101
소송계류	-	-	99
기타	327	382	276
납기 미도래	14	153	237

-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 초기 단계부터 납부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타 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5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징수 가능성, 회수 지연 원인 및 향후 수납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마. 미편성된 세입의 징수결정 현황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므로 면밀한 추계를 통해 확보 가능한 세입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러나 경제실은 그외수입(3억 9천 6백만원), 지난연도수입(2억 2천 7백만원), 위탁비반환수입(1억 9천 9백만원) 등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7개 세입예산 과목에서 총 8억 3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0	839	
경 상 적 세외수입	기 타 사 용 료	0	1	<서울시립과학관> 대관료 수입 발생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으로 예측가능성이 낮아 예산 미편성
	기타이자 수 입	0	3	<서울시립과학관> 공공계좌 이자수입 미편성
임 시 적 세외수입	위 탁 비 반환수입	0	199	<대학협력과> 수탁기관 예산 집행률 등에 따른 변동성이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 곤란
	그외수입	0	396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공덕 '편의시설(카페, 편의점) 공간 사용에 따른 전기, 수도 요금 발생분 기타사용료로 예산 착오편성하여 실제 적합한 세입과목인 ' 그외수입'으로 징수, 이후 '26년 세입예산 '기타수입-그외수입' 과목으로 세입예산 편성(8백만원) <금융투자과>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강생 예치금 미환급금 등 예측가능성이 낮은 항목으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발생사유
				로 예산 미편성하여 초과수납 발생(0.7백만원) <창조산업과> 사업수익 및 직원 제수당 반납 등 예측불가능한 세입 발생(2백만원) <첨단산업과>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센터 하자보수보증금 예측 불가 미편성, 서울시허브 민간임차시설 임차종료 시기 미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미편성(348백만원) <산업입지과> 창업복지센터 출입카드 예수금(분실, 훼손), 보증금 등에 따른 징수 및 직원 수당 등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액(1백만원) <서울시립과학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37백만원)
지방 행정 제 재 부 과 금	변 상 금	0	1	<산업입지과> 시유재산(창업큐브)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이 발생
	부정이익 환 수 금	0	12	<일자리정책과>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방보조사업자 배우자 채용에 따른 부 정수급 발생 및 '23년 매력일자리 사업 지방보조사업자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1.5백만원) <대학협력과>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른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2개 대학, 10백만원)
지난연도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0	227	<창업정책과> 24년 12월말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관리비 부과 주체가 변경(자원 순환과 -> 창업정책과)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세입 발생(13백만원) <대학협력과> '23년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대행) 발생이자 반납('24.12월 부과, '25.2월 완납)(2천원) <금융투자과> 제2서울핀테크랩 '24년 민간위탁금 반납액을 '25.1월에 납부함에 따라 초과 수납 발생('24.12월 부과, '25.1월 완납)(196백만원) <산업입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납(2백만원) <서울시립과학관> 분할징수로 인한 차액(24.8~25.7)(16백만원)

- 이 중 그외수입에서 발생한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액 3억 9천 6백만원 중 8백만원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편의시설의 전기·수도요금 발생분으로, 당초 기타사용료로 착오 편성되었다가 실제 적합한 세입과목인 그외수입으로 징수된 것임.
- 이는 예측 곤란에 따른 미편성 세입이라기보다는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과목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수입 발생 시 세입과목을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또한 위탁비반환수입은 수탁기관의 집행률 및 정산결과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세입이기는 하나 민간위탁사업의 정산 구조상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전액 예측 곤란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과거 정산실적과 집행률 추이를 반영하여 일정 규모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현황

1) 과소수납 현황

-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2,738억 6천 8백만원이며 과소 수납액의 99.8%(2,732억 4천 5백만원)는 실현이 어려운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사업 수입과 DMC 홍보관 용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수입계상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소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300,269	26,401	△273,868	
경 상 적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4,242	23,878	△364	◦ 시가표준액 및 요율 변동으로 예산 편성액 대비 실제수납액 감소(△31백만원)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임대료 산정 용역을 통해 전년도 순운영수익 확정('25.5월) 후 임대료 부과하여 추계 예산액 대비 부족수납 발생(△174백만원) ◦ 마곡광장 상가 중 3개 호실의 임대가 3회 유찰 후 하반기(25.11월~12월)에 낙찰되어 임대료 수입 감소(△141백만원)
	입장료수입	93	54	△39	◦ 서울시립과학관 2025.7.14이후(조례개정) 입장료 전면 무료
	주 차 요 금 수 입	656	586	△70	◦ 당초 예상 대비 주차장 이용횟수 감소 및 장애인, 전기차 등 감면차량 증가
	매 각 사 업	171,602	0	△171,602	◦ DMC F1,F2 용지 공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수입				변경(26.4)중으로 매각 지연(시기 미도래)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1,643	0	△101,643	◦ DMC 홍보관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감정 평가('25.12.)에 따른 매각 지연(시기 미도래)
	기부금수입	40	37	△3	◦ 기부금액 일부 조정
지난연도 수입	지 난 연 도 수 입	513	484	△29	◦ 최근 3년 세입결산액 평균 근거로 예산을 편 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 과소 발생
국고 보조금등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보조금	1,326	1,263	△63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이 예산 편성 시점 이후인 연말에 한국산 업인력공단으로부터(당초 편성 예산 대비 적 게) 확정되어 국비 수납액 감소
보전 수입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54	99	△55	◦ 최근 3년간 평균 국고보조금 반환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 과소 발생

- 매각사업수입은 세입예산액 전액(1,716억 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DMC 랜드마크 용지의 공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매각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또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도 세입예산액 전액(1,016억 4천 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DMC 홍보관 용지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감정 평가 절차 진행으로 매각 공고가 2025년 12월 말에서야 이루어졌으며 실제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 그동안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부지 매각수입을 매년 7,5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괄매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세입예산부터는 분할매각을 전제로 1회분의 매각수입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1,716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2024년부터는 DMC 용지공급과 홍보기능을 수행하던 DMC 홍보관이 2023년 말 운영 종료됨에 따라 홍보관 용지 매각 수입을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1,01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DMC 사업용지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예산 편 성 액	750,000	750,000	750,000	189,600	272,093	273,245
추 예 산 액	-	-	-	△107,100	-	-
결 산 액	-	-	-	-	-	-
과 부 족 발생사유	랜 드 마 크 용 지 미공급	랜 드 마 크 용 지 미공급	랜 드 마 크 용 지 미공급	랜 드 마 크 용 지 미공급	랜 드 마 크 · 홍 보 관 용 지 미 공 급	랜 드 마 크 · 홍 보 관 용 지 미 공 급

- 그러나 DMC 랜드마크 용지는 부동산시장 침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동산 PF 여건 악화 및 낮은 사업성 등으로 그동안 6차례의 매각공고가 모두 유찰되는 등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2025년에도 공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매각공고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
- DMC 홍보관 용지 역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절차 등으로 매각공고가 회계연도 말에야 이루어졌으며 이후 입찰이 유찰(2026.3.26.)되면서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였음.
- 이처럼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매년 대규모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입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과대계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본예산에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낙찰자 결정 등 수입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된 이후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과다 수납현황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은 총 51억 8천 4백만원으로 위탁비 반환수입(18억 7천 9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10억 4천 3백만원), 그외수입(7억 1천 9백만원), 기타이자수입(6억 4천 5백만원) 등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29,892	35,075.6	5,183.6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 료	4,738	5,006	268	◦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에 따라 공공요금에 달라져 정확한 세입 추계 곤란(경제정책과 41백만원, 산업 입지와 35백만원) ◦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이용료로, 계약기간 중 졸업 등의 사유로 공실 발생시 입주기업 재모집 등으로 이용료 초과수납(149백만원) ◦ 서울A허브,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 이용료, 관리비로 입주기업 수, 입주기간 등에 따라 변동하여 정확한 추계 곤란(98백만원)
	기타사업 수입	715	1,000	285	◦ 최근 2년 사업비(서울무역전시장) 정산액 기준으로 세입예산액 추계하였으나, 전년 대비 운영수입이 증가하여 사업비 초과수납 발생
	기타이자 수입	1,164	1,809	645	◦ 보조사업·수탁기관의 반환금 이자 반납액 예상치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반납액 과다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7,778	8,821	1,043	◦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치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반납액 과다 발생
	자체보조 금등반환 수입	3,070	3,208	138	◦ 민간 보조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치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반납액 과다 발생
	위탁비반 환수입	9,963	11,842	1,879	◦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예상치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반납액 과다 발생
	그외수입	2,449	3,168	719	◦ 서울패션허브 창업틀 운영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납(400백만원) ◦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센터 하자보수보증금 예측 불가로 미편성(137백만원) ◦ 서울A허브 민간임차시설 임차종료 시기 미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미편성(211백만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변상금	0	0.6	0.6	◦ 시유재산(창업큐브)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이 발생
	기타과태 료	15	209	19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예측보다 초과 발생
	부정이익	0	12	12	◦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부정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환수금				수급 발생 및 '23년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단체 부정수급 발생으로 제재부가금 부과(1.5백만원)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른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10백만원)

- 먼저 그외수입 중 서울패션허브 창업뜰 운영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수입(4억원)의 경우 창업뜰 운영 종료가 2023년 12월¹⁾에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세입이었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임.
- 이와 같은 시설 운영 종료,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사업부서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일회성 세입 발생 요인에 해당하므로 서울시는 예산 편성 전 각 사업의 종료 예정 여부와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수입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²⁾,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³⁾, 위탁비반환수입과 같은 보조·위탁 사업비 반환수입은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등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세입으로 사업 집행을 등에 따라 수납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세입과목은 매년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과거 평균치나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반환수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결(2023.12.15.)시 부대조건으로 창업뜰 민간위탁 사업은 부지임대기간에 맞춰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였음.

2) 사도에서 전년도에 사군구에 보조한 사도비보조금 중 사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3) 시·도·사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별 반환수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임.

사. 세입과목 오류 현황

- 경제실은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편의시설(카페, 편의점) 공간 사용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관련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은 적합한 세입과목인 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세입 징수과목 착오 내역 >

(단위 : 백만원)

편성과목	징수과목	실제수납액	발생사유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8백만원	서울창업허브 공덕 '편의시설(카페, 편의점) 공간 사용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발생분을 기타사용료로 예산 착오 편성하여 실제 적합한 세입과목인 '그외수입'으로 징수

- 세입과목의 착오는 정확한 세입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회계질서의 혼란을 유발하는 만큼 서울시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액(7,157억 5천 6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150억 1천 3백만원)을 합산한 세출예산현액은 7,307억 6천 8백만원임.

< 2025년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상입 후증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합 계	715,756	15,013	730,768	708,393	5,544	40	5,504	0	16,831	2.3
일반회계	695,036	7,784	702,819	682,206	3,788	40	3,748	0	16,826	2.4
도시개발 특별회계	20,720	7,229	27,949	26,187	1,756	0	1,756	0	6	0.02

- 이 중 96.9%인 7,307억 6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55억 4천 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8억 3천 1백만원(불용률 2.3%)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28억 1천 9백만원으로, 6,822억 6백만원을 지출(97.1%)하고, 37억 8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8억 2천 6백만원(불용률 2.4%)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9억 4천 9백만원으로, 261억 8천 7백만원을 지출(93.7%)하고, 17억 5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불용률 0.02%)임.
- 한편 2025년도 경제실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은 2.3%(일반회계 2.4%, 도시개발 0.02%)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불용률인 1.6%(일반회계 0.9%, 특별회계 3.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 세출예산 결산 결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임.

< 최근 3년간 경제실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5	715,756	14,846	166	2,746	112	730,768	708,393	5,544	16,831 (2.3)
2024	640,430	45,092	0	1,550	1,810	685,522	654,556	14,846	16,119 (2.4)
2023	742,760	64,778	0	2,963	494	807,537	733,317	45,092	29,128 (3.6)

- 다만 2025년도 경제실의 일반회계 불용률(2.4%)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0.9%)을 상회하고 있는바, 시설건립 등 특정목적을 위해 편성되는 특별회계 사업과 비교하여 일반회계 사업은 예산변경·전용 등을 활용한 유연한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요구됨.

나.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음.

1) 이용

- 2025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음.

2) 전용 및 변경사용

- 2025년도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1억 1천 2백만원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	사 무 관 리 비	965	15	0	04-02	강동일자리카페 운영 및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원상복구 추진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시 설 비	35	0	15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국 외 업 무 여 비	70	30	0	07-03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추진
인베스트서울 운영	사 무 관 리 비	110	0	30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 무 관 리 비	807	55	0	09-24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시 설 비	0	0	55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 무 관 리 비	752	12	0	12-19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의 매각공고를 위한 신문 광고료 지급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공 기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40	0	12		

- 예산의 전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과부족 상황을 추경예산이나 예비비의 지출없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먼저 ‘강동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의 경우 시설 운영 종료(2024.12.31.) 및 임대차계약 만료(2025.4.9.)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공사비로 시설비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 일자리센터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1천 5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2025.4.2.)한 것임.
- 그러나 원상복구 공사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임에도 당초 편성된 시설비의 약 42.9%에 해당하는 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산 추계가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유사 시설의 운영 종료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와 공사비 등을 보다 면밀히 산정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의 예산전용(5천 5백만원)은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2025.9.24.)한 것임.
- 그동안 경제실에서 담당했던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추진은 2025년 8월 19일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재산관리관을 경제실 산업입지과에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3일 이관되었음.
- 이후 서울시는 신속한 부지 공급을 위해 경제실의 기정예산 중 사무관리비 5천 5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미래공간기획관의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활용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경제실은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업무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 이관을 사유로 관련 예산만 분리하여 이체하는 것이 곤란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산 분리의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중요 업무를 특정예산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업무 이관시 예산과 집행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잘못된 예산 편성 및 관리가 문제점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해당 부지가 부동산 경기 불황,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여년간 매각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절차 단축을 이유로 기존 경제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집행 책임의 명확성보다 집행 편의성을 우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서울시는 부서 간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 이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용 가능한 예산조정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주체와 예산집행 주체가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6건(일반회계 14건, 도시개발특별 회계 2건), 27억 7천 4백만원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승인 일 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액	감	증		
서울퓨처랩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	7	0	07-30	보완공사 추가 건 진행
서울퓨처랩 운영	시 설 비	25	0	7		
기본경비(경제정책과)	국 내 여 비	132	2	0	11-27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업무무수행경비 부족분 발생
기본경비(경제정책과)	직책업무무수행경비	72	0	2		
서울 동행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805	79	0	06-19	2025년 하반기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한 예산 변경요청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	0	79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국 외 업 무 여 비	40	3	0	12-02	국제금융 네트워크 관리 및 협력사업의 비용 지급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사 무 관 리 비	352	0	3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사 무 관 리 비	4,553	40	0	12-16	제2서울핀테크랩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분 납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사 무 관 리 비	1,185	0	40		
인베스트서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138	1,796	0	10-17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인베스트서울 운영」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조기종료에 따른 재단의 사업비 확보
인베스트서울 운영	출 연 금	-	0	1,796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시 설 비	16,550	350	0	12-22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감리용역비 부족분 확보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감 리 비	595	0	350		
D M C 활 성 화	공 공 운 영 비	56	3	0	08-24	충무로영상센터 임차료 및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수당 부족분 발생
영 상 산 업 지 원	사 무 관 리 비	35	0	3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23	3	0	05-13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집행 필요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민 간 단 체 법정운영비보조	761	0	3		
서울패션위크 개최	행 사 운 영 비	5,400	90	0	10-16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점등식 연계 패션쇼 개최 협조 요청(도시경관과, 9.24.) 관련 예산 확보
서울패션로드 운영	행 사 운 영 비	1,073	0	90		
서울패션로드 운영	행 사 운 영 비	1,100	27	0	08-12	하반기 '밀라노 현지 세일즈 지원' 최소예산 확보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 무 관 리 비	360	0	27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시 설 비	2,051	30	0	08-24	설계용역 결과 예산 편성시보다 전기 및 소방공사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및 소방감리 금액 확보 필요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감 리 비	19	0	30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	공 공 운 영 비	182	10	0	08-20	서울시기여금속제조지원센터의 운영(전기요금 납부)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
도시형 제조업기여금속지원	공 공 운 영 비	13	0	10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승인 일 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액	감	증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시 설 비	7,515	293	0	09-19	과목 변경(시설비→감리비)을 통해 감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감 리 비	1,431	0	293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시 설 비	7,199	12	0	05-13	조달청을 통해 도급공사(건축,토목,조경) 2차수 계약 체결에 따른 조달 수수료 납부를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시 설 부 대 비	8	0	12		
서울로봇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무 관 리 비	2,841	29	0	06-20	동행로봇 발명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한 추가 과업수행에 따른 예산변경
동행로봇 발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무 관 리 비	100	0	29		

-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 ‘서울패션로드 운영’의 경우 2025년 8월 12일에 밀라노 현지 세일즈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천 7백만원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음.
- 그러나 2025년 10월 16일 청계천 야간공간 점등식 연계 패션쇼 개최를 위해 ‘서울패션위크 개최’의 행사운영비 9천만원을 ‘서울패션로드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음.
- 이처럼 동일 사업의 동일 통계목에서 불과 2개월 사이에 감액과 증액이 반복된 것은 행사성 사업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집행상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성 사업예산이 집행상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증·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연간 사업계획, 잔여 행사 일정, 추가 소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계획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창조산업 허브 조성’은 2025년 5월에 조달청 도급공사 2차수 계약 체결에 따른 조달수수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9월에는 감리용역 잔여기간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 2억 9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음.
- 조달수수료와 감리비는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기간에 따라 예측가능한 필수경비라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 공정계획, 계약방식, 감리용역 기간, 조달수수료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
- 특히 동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대규모 시설공사 예산 편성 시 시설비뿐만 아니라 조달 수수료, 감리비, 자문수당 등 공사 추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공정계획과 계약 일정에 맞춰 충분히 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시설비를 반복적으로 감액하여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일부 예산변경 사례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보다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의 미흡을 집행단계에서 보완한 측면이 있으므로, 서울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계획, 계약 일정, 필수 부대경비 및 추가 소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사용이 사후적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조직변경 등에 따라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의 이체는 총 2건, 32억 2천 5백만원으로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이 창업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창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시설비 32억 1천 5백만원을 경제정책과로 이체한 것임.

< 예산 이체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경제실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사무관리비	10	10	0	08-13	관련 업무 부서 이관(창업정책과 → 경제정책과, '25.7.24.)에 따른 이체
경제실 경제정책과	구로 조성		0	0	10		
경제실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시설비	3,215	3,215	0	08-13	관련 업무 부서 이관(창업정책과 → 경제정책과, '25.7.24.)에 따른 이체
경제실 경제정책과	구로 조성		0	0	3,215		

다. 미집행된 자원

1) 다음연도 이월액

- 2025년도 경제실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4천 4백만원(일반회계 37억 8천 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7억 5천 6백만원)으로,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 중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 2025년도 명시이월은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 1건(4천만원)이 발생함.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 성 (시 설 비)	288	205	56 (명시 40)	27	'26.4. 차고지 이전 이후 사업부지 매장유산 조사 용역 추진

- ‘서울 창업허브 관악 조성’의 명시이월은 시설 조성 예정 부지(신림3차고지)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 용역 추진 시기가 기존 차고지 이전이 지연(신림1차고지 준공연장)되면서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매장유산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 전환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일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와 사업 추진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이월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한편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는 등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도 사고이월은 총 12건(55억 4백만원)이 발생함.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 (시 설 비)	3,215	1,938	1,277	0	주관부서 변경 및 제반사항 검토 기간 소요로 실시 계획 용역 계약체결 지연 및 준공기한('27.2.23.) 미도래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사무관리비)	3,300	1,995	1,132	173	AI 특화캠퍼스 운영 용역 준공기한('26.4.4.) 미도래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공공운영비)	206	15	188	3	AI 특화캠퍼스 운영 용역 준공기한('26.4.4.) 미도래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시 설 비)	288	205	56 (사고 16)	27	서울창업허브 관악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기한('26.3.17.) 미도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캠 퍼 스 타운 성 과 평 가 (사 무 관 리 비)	200	144	55	1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용역 준공기한('26.2.28.) 미도래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시 설 비)	21,327	20,343	844	140	공사 준공기한('26.6.14. 등) 미도래
도시제조업 지원(시설비)	200	98	98	5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준공 기한('26.5.21.) 미도래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연구용역비)	150	88	59	3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준 공기한('26.1.7.) 미도래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 성 화 (사 무 관 리 비)	741	284	53	403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태조사 용역 준공기한 ('26.4.25.) 미도래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 성 화 (시 설 비)	173	145	27	2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 한('26.5.11.) 미도래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시 설 비)	13,982	12,540	1,443	0	공사 준공기한('27.7.6. 등) 미도래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감 리 비)	2,108	1,795	313	0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26.1.11.) 미도래

- 그리고 이러한 사고이월은 대부분 계약된 용역 및 공사의 준공 시점이 다음 연도로 설정되어 있거나, 주관부서 변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진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일부 사업은 용역 계약체결 당시부터 준공기한이 다음연도로 설정되어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정이 계약 이후 예측 곤란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예를 들어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운영 대행 용역’은 2025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점을 2026년 4월로 설정하였고,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용역’은 2025년 4월 계약체결 당시 준공시점을 2026년 2월로 설정하였음.
- 또한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25년 5월 계약 체결 당시 준공시점을 2026년 5월로 정하였으며,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도 2025년 4월 계약체결 당시 준공시점을

2026년 1월로 설정하였음.

- 이 외에도 ‘서울테크스페이스 조성사업 설계용역’,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태조사용역’, ‘서울창업허브 관악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은 각각 2025년 11월과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다음연도 이후로 설정한 사례로, 계약체결 시점부터 연내 지출 완료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음.
- 이와 같은 사례들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이월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예측 곤란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우라기보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미 다음연도 집행이 예정된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용역 및 시설공사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계약체결 가능 시점, 과업수행 기간 및 준공 가능 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부터 다음연도 준공이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말 계약체결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임.

2) 보조금반납금

- 2025년도 경제실의 보조금 반납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사업의 1만 2천원으로 부지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산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보조금 반납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명	재원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반납 사유
도시개발 특별회계	홍릉 일대 도시 재생 뉴딜사업 지원	계	10,483	10,483	0.012	부지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계산 과정에서 소액 집행잔액 발생
		국비	3,722	3,722	0.012	
		시비	6,761	6,761	-	

- 보조금반납금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국비가 매칭된 보조사업인 만큼 부지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산정 및 최종 정산 과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집행잔액

- 예산은 다음연도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예정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전 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 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경제실의 2025년도 불용률은 2.3%로 전년(2.4%) 대비 0.1% 감소했으며, 이 중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7개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기본경비(경제정책과)	338	63	18.8	비정기적으로 출장이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당초 예상 대비 적은 출장횟수 최근 5년간 불용 및 불용사유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 조 금 지 원	452	97	21.4	지원기업 투자유치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회계검증료 집행 잔액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외투기업의 공모 신청 및 선정 기업 감소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국가직접지원)	2,700	600	22.2	현금지원 지급대상 2개사 중 1개사 변경계약 체결에 따라 2025년부터 미지급(기편성 지원금 6억 원)으로 불용
국 고보 조 금 반 환 (금 용 투 자 과)	0.1	0.08	92.5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서비스형 외투자역 임대료 지원) '24년 지원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이자액 과소 발생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 성 화	2,250	498	22.1	DMC 랜드마크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으로, 매각시기 미도래하여 감정평가 미실시
도시형 제조업(기계금속) 지 원	612	107	17.5	시설 운영 용역(서울시기계금속지원센터, 영등포 거점시설)의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기 본 경 비 (서울시립과학관)	751	167	22.3	차량 폐차로 인한 수리비 미지출 및 전기, 통신비 각종 수수료 지급 후 잔액

- 이 중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불용률 22.2%)은 현금지원 지급대상 2개사 중 1개사의 사업규모 축소 및 고용의무 이행 부진 등에 따라 현금 지원 계약이 변경되면서 2025년도 지급 예정액 6억원이 미지급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임.
- 다음으로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불용률 22.1%)는 당초 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용지의 재산관리관이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면서 감정평가를 미실시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의 유연성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탄력적 조정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시형 제조업(기계금속) 지원’ (불용률 17.5%)은 ‘서울시 기계금속 제조지원센터 관리운영 용역’ 과 ‘영등포 거점시설 관리운영 용역’ 의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해당 용역은 각각 2025년 4월과 2024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서울시는 용역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예산의 조정 또는 활용방안을 적기에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서울시는 민생경제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 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해 2025년 5월과 8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제실의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AI산업 기반 조성,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확보 등에 집중되면서 세출예산이 당초 6,764억원에서 319억원이 증액(2.3%)된 7,083억원이 편성됨.

< 2025년 추경예산 회차별 경제실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6,764	7,084(+320)	7,083(△1)

- 그리고 202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1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으나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도시제조업 지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초래됨.

< 추경예산 증액분 초과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18,282	18,124	158	22,554	158
도시제조업 지원	1,602	1,542	60	1,435	70

- 이 중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시설비와 전산개발비 등의 낙찰 차액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도시제조업 지원’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국비 감액(3억원)에 따른 매칭 시비 불용으로 인하여 추경 예산 증액분 보다 초과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은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어야 함.
- 그러나 상기의 사업들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규모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훼손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추경예산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마. 성과보고서

- 경제실은 예산사업의 성과중심 운영을 위해 ‘글로벌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보호’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정책사업목표에 총 7,083억 9천 3백만원을 지출함.
- 11개 정책사업목표는 총 22개의 성과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성과 달성도는 100%를 기준으로 초과달성 3개, 달성 16개이며, 미달성 3개임.
- 성과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방식의 혁신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또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이 구체적이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여 해당 근거가 합리적이고 추후 성과결과의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경제실의 초과 달성 성과지표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확인됨.
- 예를 들어 서울시립과학관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 방문객과 이용자수를 매표소의 매표 기준으로 책정하여 당초 목표대비 198%를 달성함.

< 서울시립과학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3년 달성성과	2024년 달성성과	2025년 달성성과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명	오프라인 매표 관람객 수명 (온라인 제외)	목표	53,293	68,202	139,267
		실적	99,871	169,619	275,611
		달성률(%)	187%	248%	198%

- 그러나 최근 3년간 과학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년 달성 실적보다 낮은 방문객 및 이용자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그 성과는 매년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과 예산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성과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임.
- 특히 과학관의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과학관의 2026년 목표치는 2025년 달성치인 275,611명의 74.7% 수준인 205,755명으로 설정되어 있어 2026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과학관은 성과지표의 산출 방식과 근거를 점검하여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예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도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 수료율’,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컨설팅 제공 건수’ 등의 성과지표는 전년도 달성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실제 사업성과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지표별 목표치 산정근거를 점검하고 사업여건 변화와 최근 달성 추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바. 성인지결산서

- 경제실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업, 콘텐츠,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에서 경제활동 역량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18개 사업에 2,500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2,387억 7천 4백만원(95.5%)이 집행됨.
-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은 95.5%로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평균 집행률(98.4%)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전년도 경제실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 보다는 1.9% 감소한 것임.

< 경제실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5	18	250,063	238,774	95.5
2024	19	250,708	244,145	97.4
2023	22	278,152	257,613	92.6

-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집행률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5.9%, 성별영향평가사업 97.5%, 자치단체특화사업 99.7%, 기타사업 91.4%로, 기타사업의 집행률이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18	250,063	238,774	95.5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	1,010	968	95.9
성별영향평가사업	2	139,576	136,015	97.5
자치단체특화사업	13	21,113	21,040	99.7
기타사업	2	88,364	80,751	91.4

- 이는 기타사업에 포함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89.3%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성별 수혜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효과성 있는 목표와 평가방법이 설정·집행되어야 함.
- 2025년도 경제실 성인지예산 사업 18개 중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7개 사업임.

< 경제실 성인지예산 실적부진 사업 >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1	서울 동행일자리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중 여성 참여자 비율(%)	55	49.0
2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여성 참여자 비율(%)	51	43.1
3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대상 청년 중 여성인원(명)	46	38
4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일자리카페 직업상담사 성인지성평등 교육 이수율(%)	80	63.0
5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입주기업 여성대표 비율(%)	40	32.6
6	청년창업꿈터 운영	우수 여성 청년창업가 지원 비율(%)	20	18.0
7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전체 입주기업 중 여성대표 기업 수(개)	8	4

- 이 중 ‘서울 동행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는 각각 여성참여자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함.
- 실제로 ‘서울 동행일자리’는 여성 참여자 비율 목표 55% 대비 실적이 49%에 그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역시 목표 51% 대비 실적이 43.1%에 불과하여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여성 참여자 비율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기계적인 지표 설정 방식은 사업의 합목적성과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타당한 성과지표 마련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은 근무환경개선금 지원대상 청년 중 여성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46명 대비 실적은 38명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음.
- 이러한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은 여성 청년의 고용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과 여성 청년의 채용 확대 또는 고용유지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단순히 지원대상 중 여성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보다는 여성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 효과, 고용유지 여부, 지원 전후의 근로여건 변화 등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카페 직업상담사의 성인지·성평등 교육 이수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80% 대비 실적은 63%에 그쳤음.
- 직업상담사는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성인지·성평등 교육 이수는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성평등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사항에 해당함.
- 그럼에도 교육 이수율이 목표에 미달한 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서의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업상담사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청년창업꿈터 운영,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등의 사업은 여성창업가 또는 여성대표 기업의 참여 확대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대상 기업 선정은 사업성,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히 여성대표 기업 수나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할 경우 사업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기술창업 지원 중심의 사업은 업종 특성, 신청기업 모집 규모, 여성 대표 기업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의 재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2025년도 경제실 성인지예산 실적부진 사업은 일자리 참여자 비율, 여성 청년 지원인원, 교육 이수율, 여성대표 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표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성인지예산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표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실은 성인지예산 사업을 형식적으로 편성·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상사업의 적정성, 성과목표의 타당성, 실적부진 원인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성별 수혜격차 완화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사. 기후결산서

- 기후결산서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로, 기후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결산 단계에서 점검하여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기후예산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07억 2천 2백만원 중 505억 2천 4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1.9%로 2024년도 (59.9%)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170.7tCO₂로 감축목표 193.5tCO₂의 88.2% 수준으로 나타남.

< 경제실 기후예산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tCO₂)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	집행률 (B/A)	감축목표	감축량
		소계	지출액	이월액				
6	50,722	50,524	46,591	3,933	198	91.9	193.5	170.7

-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성과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는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나머지 4개사업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향후 반영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경제실 기후예산 사업 집행현황 >

구분	사업 유형	성과목표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달성여부	감축목표	감축량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	혼합 성	ZEB 인증 (비주거용, 4등급) (㎡)	16,652	기본설계 단계	-	달성 (정상추진)	향후반영 (29년, 316.4tCO ₂)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	혼합 성	ZEB 인증 (비주거용, 4등급) (㎡)	15,415	도시관리 계획변경	-	달성 (정상추진)	향후반영 (28년, 486.7)	향후반영 (31년, 222.9)
서울 영화 센터 건립 및 운영	배출	지열시스템 (kW)	401.609	401.609	100.0%	달성	165.9tCO ₂	165.9tCO ₂
		연료전지 (t-LNG)	231X10 ³	2.31X10 ⁻³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	배출 성	지열시스템 설치 (kW)	1,299.394	43.2%	-	달성 (정상추진)	향후반영(27년, 536.6)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배출	ZEB 인증(㎡) (비주거용, 5등급)	805.26	805.26	100.0%	달성	12.3	48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	배출	태양광 설치용량 (kW)	20.0	공사 진행 중	-	달성 (정상추진)	12.3	향후반영 (27년, 12.3)

- 이처럼 기후예산 사업의 상당 부분이 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사 진행 등의 과정에 있는 시설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결산 단계에서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보다 사업 절차의 정상 추진 여부나

향후 감축효과 중심으로 성과가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정상추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사업 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바 이를 기후성과 달성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시설 조성사업을 기후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사업 추진단계별 성과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공사 착수 전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감축효과의 산정 근거와 반영 시기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후예산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시한 감축목표가 결산 단계에서 실제 감축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준공 이후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사후 관리하여 기후결산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아. 주요 사업별 검토

1)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 서울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기업 성장과 창업 촉진, 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의 정책 결정 사항을 경제·산업현장에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진흥원은 자체 수입만으로 정책사업 전반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서울시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음.
- 이러한 재정구조에 따라 진흥원의 총 세입은 경상예산(서울시 출연금 및

자체수입)과 수탁예산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세입은 경상예산 966억 2천 3백만원, 수탁예산 1,648억 2천 4백만원 등 총 2,614억 4천 7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서울경제진흥원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잔액 (B-A)	달성률 (B/A)*100
총 계	272,248	272,023	261,447	257,376	△4,071	98.4%
경상예산	90,648	100,048	96,623	94,587	△2,036	97.9%
자체수입	29,502	33,008	36,672	34,636	△2,036	94.4%
고유사업수입	12,190	11,184	12,442	11,145	△1,297	89.6%
시설운영수입	6,347	6,298	6,456	6,192	△264	95.9%
기타사업수입	2,417	4,286	2,575	3,519	944	136.7%
사업외수입	2,580	2,315	3,000	1,581	△1,419	52.7%
잉여금수입	3,106	4,148	5,584	5,584	-	100.0%
보전수입(전년도이월액)	2,862	4,777	6,614	6,614	-	100.0%
출연금수입	61,146	67,040	59,951	59,951	-	100.0%
출연금수입	61,146	67,040	59,951	59,951	-	100.0%
수탁예산	181,600	171,975	164,824	162,789	△2,035	98.8%
수탁사업수입	181,600	171,975	164,824	162,789	△2,035	98.8%

- 전체 세입 중 진흥원의 고유사업과 기관 운영 등에 사용되는 출연금은 2025년도 총 세입액 2,573억 7천 6백만원의 23.3% 수준인 599억 5천 1백만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 670억 4천만원 대비 70억 8천 9백만원(1.3%)이 감소하였음.

<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서울시 출연금 규모 및 비중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세입액(A)	출연금(B)	출연금 비중(B/A)
2024년도(B)	272,023	67,040	24.6%
2025년도(B)	257,376	59,951	23.3%
차액(B-A)	△14,647	△7,089	△1.3%

- 출연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진흥원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의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출연금 감액 편성을 위하여
고유사업 중 일부를 축소하거나 종료하여 총 111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본예산 당시 출연금 감액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4년	2025년(본예산)	증감내역	형태
고유	고용지원(사업 종료)	1,569	-	△1,569	사업 종료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2,790	2,079	△711	사업 축소
	하이서울기업지원	3,410	2,025	△1,385	
	DMC인프라운영	8,061	7,532	△529	
	상상타운조성 및 운영	3,547	840	△2,707	
	DDP쇼룸운영	4,664	3,932	△732	
	첨단기술전시운영	3,784	264	△3,520	

- 이후 서울시의 기조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 16억 3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출연금 규모와 사업 내용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음.

< 2025년도 출연금 추가예산 편성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본예산	추경편성	최종예산
출연금 추경사업	해외시장진출지원	3,091	600	3,691
	하이서울기업지원	2,025	130	2,155
	글로벌커머스사업운영	3,068	270	3,338
	서울 로봇쇼 개최	1,532	300	1,832
	중소기업 입찰정보 알리미 지원	-	230	230
	디지털 역량(AI) 교육운영 지원	-	100	100
	합 계	9,716	1,630	11,346

-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연속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필수적인 재정구조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임에도 시정 기조 변화에 따라 출연금과 사업 규모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한편 2025년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 세입액 중 실제 사업에 투입된 집행액은 2,455억 9백만원(집행률 93.9%)으로 집행잔액 15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259,135	258,340	261,447	245,509	15,938	93.9%
경상예산	86,500	94,464	96,623	87,720	8,903	90.8%
고유사업비	49,626	56,578	53,722	48,798	4,924	90.8%
글로벌창업기업육성	8,151	8,531	6,295	6,085	210	96.7%
기업매출증대지원	13,080	11,660	11,905	11,559	346	97.1%
기업인재양성및고용지원	2,673	1,722	254	254	-	100.0%
기업기술경쟁력강화	-	-	1,832	1,831	1	99.9%
뷰티·패션산업육성	4,558	15,564	15,448	12,095	3,353	78.3%
창조산업육성	9,215	10,256	8,969	8,739	230	97.4%
산업거점활성화	11,949	8,845	9,019	8,235	784	91.3%
기관운영경비	30,439	31,749	35,660	32,624	3,036	91.5%
시설운영경비	6,435	6,137	6,522	6,298	224	96.6%
예비비	-	-	719	-	719	0.0%
수탁예산	172,635	163,876	164,824	157,789	7,035	95.7%
수탁사업비	167,983	154,910	164,114	157,161	6,953	95.8%
글로벌창업기업육성	35,957	31,748	34,167	30,524	3,643	89.3%
기업매출증대지원	475	510	600	582	18	96.9%
기업인재양성및고용지원	39,407	43,166	46,090	45,816	274	99.4%
기업기술경쟁력강화	55,735	51,698	54,389	52,747	1,642	97.0%
뷰티·패션산업육성	6,836	7,734	4,746	4,257	489	89.7%
창조산업육성	7,148	6,506	7,247	7,148	99	98.6%
산업거점활성화	22,425	13,548	16,875	16,087	788	95.3%
기타(매력일자리 등)	4,652	8,966	710	628	82	88.4%

-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89억 3백만원(9.2%), 수탁예산 70억 3천 5백만원(4.3%)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경상예산의 경우 고유사업 중 뷰티·패션산업육성의 사업 집행 부진(78.3%)에 따른 잔액 33억 5천 3백만원과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기관운영경비 잔액 30억 3천 6백만원이 주된 원인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수탁예산의 경우 글로벌창업기업육성 집행 부진(89.3%)에 따른 잔액 36억 4천 3백만원과 기업기술경쟁력강화 사업의 지원대상과제 포기 및 미인정 정산금액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 16억 4천 2백만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경상예산과 수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높게 발생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전시운영’, ‘인베스트서울운영’, ‘서울국제금융오피스운영’ 등 총 3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31.7%(50억 5천 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25년도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사업명	최종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뷰티패션산업육성	첨단기술전시운영	3,790	745	3,045	19.7%	DDP 아트를 1층 복합문화 공간(카페드페소니아) 명도 소송 장기화로 2025년 조성 예정이었던 ‘첨단테크 퓨처리움(가칭)’의 미조성 결정에 따라 이월 예산 중 해당 잔여 예산(3,024백만원)불용
글로벌창업기업육성	인베스트서울운영	5,300	3,432	1,868	64.7%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2025.10)
	서울국제금융 오피스운영	676	538	138	79.7%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2025.10)

- ‘첨단기술전시운영’ 사업의 경우 DDP 아트를 명도소송 장기화로 해당 공간에 조성 예정이던 ‘첨단테크 퓨처리움(가칭)’의 조성이 무산되면서 전체 예산의 80.3%인 30억 2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해당 예산은 2024회계연도에 시설비 25억원, 공공운영비 1억 6천 9백만원, 사무관리비 3억 5천 6백만원, 회의비 1백만원 등 총 30억 2천 6백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소송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월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효과적인 집행 없이 불용 처리되었음.

- ‘인베스트서울운영’ 및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사업은 연내 출범 예정이었던 서울투자진흥재단 신설에 따라 10개월간 운영 후 조기 종료 (2025.10.)되면서 잔여 2개월분 예산 20억 6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 결론적으로 진흥원의 이 같은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소송, 기관 신설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 가능했던 구조적 변화를 예산에 적기 반영하지 못한 리스크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설 위탁 갱신 여부, 조직 개편 등 대내외 행정 변수를 사전에 분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서울 동행일자리

- 동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 사업의 추진과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942억 1천 2백만원 중 921억 4천 6백만원(97.8%)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 6천 6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서울 동행일자리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94,212	92,146	92,146	-	2,066	2.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67	13,614	13,614	-	1,653	10.8
사무관리비	948	905	905	-	43	4.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726	74,596	74,596	-	130	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271	3,031	3,031	-	240	7.3

- 동 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2.6%)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집행잔액 규모는 20억 6천 6백만원에 달해 여전히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과 사업참가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 참가인원이 목표 인원을 해마다 크게 초과하여 1만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목표 인원내 반영하지 않고 예산의 규모만 증가하였음.

<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 인원 및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참여 인원			예산 현황				
	목표인원	선발인원	달성률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년	11,374	14,093	124%	72,590	70,669	-	1,921	97.3%
2022년	8,869	12,248	138%	67,229	62,352	193	4,683	92.7%
2023년	13,000	14,534	111%	106,135	97,432	304	8,400	91.8%
2024년	11,500	14,067	122%	88,209	85,919	-	2,290	97.4%
2025년	11,500	14,829	129%	94,212	92,146	-	2,066	97.8%

- 이러한 특성에 더해 동 사업은 인건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까지 인력 공백 기간 동안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참 여 자 수 (명)	14,534	14,067	14,829
중도 포기자 수(명)	1,150	1,356	1,354
중도포기 비율(%)	7.9	9.6	9.1

- 이에 서울시는 실적이 저조한 수행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및 대기자 제도 운영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도포기자는 2023년 1,150명(7.9%), 2024년 1,356명(9.8%), 2025년 1,354명(9.1%)등 최근 3년간 유사한 규모의 중도 포기자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연간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재정 운용상 한정된 재원이 시급한 타 민생 사업에 적시 투입되지 못하는 기회비용 손실을 의미함.

- 특히 의회의 반복적인 결산 감사 지적에 더하여 서울시의 대기자 제도 도입 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9%대의 중도포기 비율과 대규모 집행잔액이 고착화 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행 사업이 현 집행잔액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실제 사업 추진 현황과 중도포기자 추이, 그리고 하반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 집행 규모를 정밀하게 재예측한 후, 초과가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추정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서울 매력일자리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과 직무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11억 3천만원 중 635억 2천 1백만원(89.3%)이 집행되고 76억 9백만원(10.7%)이 불용됨.

< 서울 매력일자리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1,130	63,521	63,521	0	7,609	1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669	27,378	27,378	0	4,291	13.5
사무관리비	3,328	2,916	2,916	0	412	12.4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4	26,678	26,678	0	2,326	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93	6,539	6,539	0	554	7.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	10	10	0	26	72.2

- 서울시는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층에게 시정 관련 일 경험을 토대로 민간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뉴딜 일자리’ 라는 명칭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22년부터는 취업의 질과 민간일자리와 연계를 제고하고자 대상 사업장 중 공공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 관련 세부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취업률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매력일자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

< 서울 매력일자리 개요 >

- ☐ 사업형태 : 시·투자출연기관 사업(시비 100%), 자치구 사업(시·구 7:3 매칭)
- ☐ 목표인원 : 3,500명
-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민
- ☐ 사업구조 : 공공형(시·구·투자출연기관)+ 민간형(민간기관·협회단체)
- ☐ 근무조건 : 서울형 생활임금(11,779원) 적용
- ☐ 지원내용 :
 - (공공형)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직무교육, 취창업 교육 및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 (공공형) 매력매니저를 통한 참여자 경력관리,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
 - (공공형) 참여종료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사후 관리
 - (민간형) 전문교육, 인턴십 근무, 취업 연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37억 3천 5백만원 감소했음에도 집행잔액은 50억 8천 8백만원 (201.8%) 증가하였음.

< 서울 매력일자리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25,160	67,900	85,648	92,174	100,264	83,294	84,722	80,508	74,865	71,130
집행액	21,573	66,602	78,208	84,813	92,820	78,603	73,701	73,628	72,344	63,521
집행잔액	3,587	1,298	7,440	7,361	7,444	4,691	11,021	6,880	2,521	7,609
불용률	14.3	1.9	8.7	8.0	7.4	5.6	13.0	8.5	3.4	10.7

- 경제실은 이와 같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공공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역량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 인원 대비 승인 인원이 감소하였고, 민간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신청 사업 대비 승인 사업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공공형 사업은 참여자의 자격요건과 사업 적합성이 실제 신청과 선발 과정을 거쳐 확인될 수 있고, 민간형 사업 역시 수행기관의 사업역량은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 자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매년 대규모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예산 편성 시 과거 실적, 참여자 충원 가능성, 민간형 수행기관 선정률, 사업유형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은 결산상 집행잔액 외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지원한 보조금의 정산 과정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잔액과 함께 미집행성 재원 규모를 파악하는 보조적 지표로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은 매년 3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는 집행잔액 76억 9백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33억 8천 1백만원을 합한 109억 9천만원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함.

< 서울 매력일자리 보조금 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765	3,404	3,38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4	282	353
	민간경상사업보조	3,411	3,122	3,028
주요 반납 사유		참여자 중도이탈 등	참여자 중도이탈 등	참여자 중도이탈 등

- 이는 당초 교부된 보조금 중 실제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재원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복적인 반납액 발생은 보조금

편성 및 교부 규모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다만 보조금 반납의 주요 사유가 참여자의 취·창업, 개인사정 등에 따른 중도이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적으로 사업 운영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매년 30억원 이상의 보조금 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보조금 편성 및 교부 시 과거 반납 규모와 사업유형별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규모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교부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은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서울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 직업 훈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4억 3천 2백만원 중 188억 4천 5백만원(87.9%)이 집행되고 25억 8천 7백만원(12.1%)이 불용됨.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1,432	18,845	18,845	0	2,587	12.1
사 무 관 리 비	150	104	104	0	46	30.7
공 공 운 영 비	5	5	5	0	0	0
연 구 용 역 비	104	104	104	0	0	0
민 간 위 탁 금	18,351	15,810	15,810	0	2,541	13.8
민 간 위 탁 사 업 비	2,821	2,821	2,821	0	0	0

- 기술교육원은 2025년부터 단일 수탁기관이 기존 4개 캠퍼스를 총괄하여 캠퍼스별 조직·인사, 학과, 시설·장비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음.

< 2025년 서울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

구 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위 치	용산구 한남동	경기도 군포시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상계동
설립년도	1957	1988	1979	1990
위탁법인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위탁기간	'25. 3. 1. ~ '28. 2. 29.			
훈련대상	15세 이상 서울시민			
학과/인원	39/1,806	15/644	53/1,701	45/1,758
서울시과정	23/1,260	6/220	25/1,201	28/1,250
국가협력과정	16/546	9/424	28/500	17/508

- 동 사업의 집행잔액 25억 8천 7백만원 중 25억 4천 1백만원(98.2%)은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 비영리법인 수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집행, 인건비·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등 때문임.
-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183억 5천 1백만원 중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해 176억 1천 9백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집행액은 158억 1천만원으로 18억 9백만원의 집행잔액과 7억 3천 2백만원의 계약심사 절감액을 합한 25억 4천 1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계약심사액 (B)	예산변경 (C)	집행액 (D)	집행잔액 (E=B+C-D)	계약심사 절감액 (F=A-B)	최종 불용액 (E+F)
합 계	18,351	17,619	0	15,810	1,809	732	2,541
인건비·운영비·사업비	15,886	15,281	232	15,355	158	605	763
위탁대행수수료(이윤)	247	232	△232 ²⁾	0	0	15	15
일반관리비	163	153	0	0	153	10	163
부가가치세	1,668	1,566	0	68	1,498	102	1,600
심사제외 ¹⁾	387	387	0	387	0	0	0

1) 인건비 성급금 등 기 계약분에 대한 심사 제외

2) 비영리법인이 선정됨에 따라 미집행 예정이었으나 통합운영 필요 비용으로 변경 집행

- 계약심사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중 부가가치세는 조정금액 15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탁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 선정됨에 따라 대부분 집행되지 못해 14억 9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1억 5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억 5천 3백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음.
- 계약심사 절감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계약심사 절감액을 단순히 결산 단계에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 활용 가능성이나 예산배정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중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은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가 회계연도 시작 전인 2024년 12월 6일에 통보되었고 위수탁 협약도 2025년 2월 12일 체결되어 실제 집행 가능 규모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심사 절감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예산관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불용처리하였음.
- 또한 경제실은 계약심사 절감액을 제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 대해 2025년 하반기 대규모 학과개편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보유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학과개편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4) 별표2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

-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첫해에 학과개편 등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원을 보유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하반기까지 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불용 예상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편성 시 최근 집행실적, 인력 운영계획 및 훈련과정 운영 규모 등을 사전에 반영하여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심사 결과나 협약체결 이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용 예상액이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임.

5)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금

-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로 통한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 기구(IPA⁵⁾)로, 2025년 10월 첫 출범 하였음.
- 재단은 글로벌 자본 유치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특성상 자체 수입이 없으므로 재단 설립과 운영 비용 전액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의 2025회계연도 세입은 전액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5억원과 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12억 9천 6백만원⁶⁾ 등 총 17억 9천 6백만원임.

5) IPA(투자유치 전담기관):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약자. 통상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늘리는 권한을 가진 국가 혹은 지자체 기관’을 의미함.

6) 고유사업비 4억 5천6백만원, 기관운영경비 8억 3천7백만원, 예비비 3백만원

< 2025회계연도 서울투자진흥재단 세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총 수입액	경상재산	1,296
	기본재산	500
	계	1,796
서울시 출연금		1,796
출연금 비중		100%

- 재단은 기본재산 5억원을 제외한 경상예산 12억 9천 6백만원 중 9억 5천 4백만원(집행률 73.6%)을 고유사업 수행 및 사무공간 설계, 조직 정비 등에 집행하였고 차기이월액은 3억 4천 2백만원임⁷⁾.

< 2025회계연도 서울투자진흥재단 수입·지출결산서 >

(단위: 백만원)

구분	자 금 결 산			
	계 정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징수결정액·채무 확정액)	수납액·지출액
수입	계	1,796	1,455	1,455
	영 업 수 익	1,296	954	954
	영 업 외 수 익	-	-	-
(I)	기 타 자 본 적 수 입	500	500	500
지출	계	1,296	954	954
	영 업 비 용	1,144	810	810
	유 형 자 산 취 득	26	25	25
	무 형 자 산 취 득	124	119	119
	기 타 자 본 적 지 출	500	500	500
	예비비	3	-	-
차기이월금	계			342
	순 세 계 잉 여 금			254
	사 고 이 월 금			68
	명 시 이 월 금			19

- 재단은 주요 사업 추진 사항으로 ① 해외 투자청과의 MOU 체결, ② MIPIM Asia Summit 2025참가, ③ Core기업 어워드 시상 및 인사이트데이 개최, ④ 올인원 패키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한 투자

7) 사고이월: 68백만원, 명시이월: 19백만원, 계속비이월: 254백만원

유치 1,177억원, 기업지원 14개사, MOU체결 4건 등의 실적을 보고함.

< 2025회계연도 서울투자진흥재단 주요 추진사항 및 실적 >

주요 내용	실적	세부 실적내용
투자유치 실적	1,177 억원	FDI 올인원패키지(1,108억원) 서울 스타트업 해외투자유치 지원(69억원)
지원 기업	14 개사	FDI 및 국내외 기업 지원사업(13개사) 기업-서울 투자자 연결(1개사)
MOU 체결	4 건	(미국)ASOK, (프랑스)Business France, (일본)JETRO, (룩셈부르크)LTIO
주요 추진사항 ①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개최 - 재단 헌판 제막식 및 비전선포, 사업계획 발표 -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 투자청과의 MOU 체결(4건)* * (미국)ASOK, (프랑스)Business France, (일본)JETRO, (룩셈부르크)LTIO ② MIPIM Asia Summit 2025 참가 - (서울 홍보관 운영) 부동산 개발사, 투자사 대상 핵심 개발지 홍보 및 투자자 발굴(159명) - (네트워킹) 컨퍼런스 패널토론 참여(투자유치실장), 중국, 홍콩 등 해외기관 네트워킹(5개 기관) ③ Core기업 어워드 시상 및 인사이드데이 개최 - (어워드) '25년 글로벌 자본유치 성과우수기업 선정(4개사) 및 기업지원금 지급 - (인사이드데이) Core기업 어워드 시상식, 자본유치 세미나, 네트워킹 등 실시(56명 참가) ④ 올인원 패키지 외투기업 지원 - AI, 뷰티, 패션, 콘텐츠 등 市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위주로 총 1,108억원 투자유치 - 지원기업 대상 정기적 간담회·애로 해소 등을 통하여 후속투자 확대 유도 계획		

- 한편 재단의 차기이월금 3억 4천 2백만원이 발생한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사고이월 6천 8백만원, 명시이월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4백 만원이 각각 발생한 결과임.
- 먼저 사고이월은 동 투자재단이 2025년 11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 광고, ▶재단 홍보영상 제작, ▶재단 및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이 2026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총 6천 8백만원이 사고이월 됨.
 - 지하철 역사 광고('25.12.8 ~ '26.2.28)
 - 재단 홍보영상 제작('25.12.22 ~ '26.1.14)
 - 재단 및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홈페이지 유지보수('25.11.1 ~ '26.4.30)

- 명시이월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편성한 ‘퇴직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 법 제28조 및 제29조⁸⁾에 따라 이를 적립할 외부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총 퇴직급여 9천 2백만원 중 현원(16명)에 해당하는 퇴직금 1천 9백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임.
- 재단은 2026년 중 퇴직금을 예치할 외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명시이월 된 퇴직금을 적립할 예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금번 명시이월이 즉각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재단 출범이 장기간 예견되었음에도 연말까지 외부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행정 준비가 미흡했음을 의미하며, 퇴직금을 목적대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내부에 묶어둠으로써 이자 등 운용수익 상실이 우려되는바, 조속히 외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명시이월 된 퇴직급여를 이체하여 퇴직급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밖에 각종 경비 및 사업 후 잔액 등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4백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차기 이월금에 포함된 바, 이는 투자재단 회계규정 제77조에 따른 조치로 문제는 없으나 차기년도 출연금 편성시 이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투자진흥재단 회계규정(2025.11.27.시행)

제77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 한편 시의회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출연금 동의안’ 과 재단의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괴리가 확인됨.

< 2025회계연도 투자재단 출연금 동의안 대비 실제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5년 출연금 동의안	실제 편성 내역	증감(비율)
사업비	430	456	26(6.0%)
인건비	383	362	△21(5.5%)
운영비	432	475	43(10.0%)
기본재산	500	500	-
예비비	50	3	△47(94.0%)
총액	1,795	1,795	-

- 특히 변동이 큰 예비비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신규 입사자 PC류 일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계정을 신설하여 전용하였는바, 이는 투자재단 회계규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3차 이사회 안건으로 의결을 받은 것은 확인됨.

서울투자진흥재단 회계규정(2025.11.27.시행)

제6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분야·부문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

- 즉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비비 전용 등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시의회의 출연금 의결 시의 규모를 94%나 조정하여 전용한 것은 시의회의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적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재단은 더욱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역대로 출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국가직접지원)

-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국가직접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와 서울시가 현금지원금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원 중 21억원(77.8%)이 집행되고 6억원(22.2%)이 불용됨.

<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700	2,100	2,100	0	600	22.2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	2,100	2,100	0	600	22.2

- 동 사업은 당초 T社⁹⁾와 E社¹⁰⁾ 등 2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이 중 T社에 대한 2025년도 지급예정액 6억원이 미지급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개요 >

- **사업목적** : 서울 유치에 성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력 강화

□ **추진경위** :

 -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11년~)
 - 대상기업 : 서울시와 MOU 체결한 기업으로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완료기업(2개사)
 - ▶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촉진계획(투자창업과-13449, '19.12.26.)
 - ▶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금융투자과-3262, '22.12.7.)

□ **사업내용** :

9)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 유한회사

10) 아이라인 스튜디오 코리아 유한회사

- ▶ 사업기간 : '11년~계속
- ▶ 지원대상 : T社, E社 등 2개 기업
- **지원내용** :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매칭지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 및 고용 실적 달성여부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 ※국비:시비 = 50:50 매칭 사업(국가 분담비율 10%p 상향 가능)
- **'25년 지원금액** : 2,700백만원
 - 5개년간 연도별 FDI 금액 도착(예정) 비율에 따른 차년도 현금지원예산 편성, 지급

- T社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고용의무 이행 부진 등에 따라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현금지원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T社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감액하고 기 지원했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서울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사후관리 조치안' 을 의결하였음.

< 2025년 T社 현금지원 변경계약 체결 경위 >

- **투자유치 개요**
 - 외투법인: T社
 - 투자규모/고용(5년간): 외국인투자 2억불 / 417명 고용
 - 사업내용: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용한 공유주방 플랫폼 운영
 - 현금지원: 292억원(국비: 146억원, 시비: 146억원)
 - ※ 산업부 146억원 지급 완료, 서울시 24.67억원(약정액의 17%) 지급
- **추진경과**
 - ▶('19.12.) 산업부 제96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현금지원 292억원 의결
 - ▶('19.12.) 산업부-서울시-T社 간 현금지원 계약 체결
 - ▶('20.02.) 산업부 현금지원금 146억원 T社에 일괄 지급
 - ▶('21.~'24) 서울시 4회에 걸쳐 총 24.67.억원 지급
 - ▶('25.02.) T社,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시장 침체, 업황 악화로 현금지원 계약변경 요청
 - ▶('25.03.)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T社 계약변경 조치안 의결
 - ▶('25.04.) T社 현금지원금 위약금 및 감액분 환수 완료(서울시 14백만원)
 - ▶('25.06.) 산업부 현금지원 변경 계약서 승인
 - ▶('25.07.) 변경계약 체결 완료
- **계약변경 주요 내용**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7조 현금지원금 규모	292억원	49억560만원	국시비분 현금지원 위약금 환수 완료
제10조 외투 이행 (국내로의 투자)	2억불	44.27백만불	현재 투자이행 수준에서 동결
제10조 외투 집행 (투자금 실집행)	2억불	44.27백만불	현재 투자집행 수준에서 동결
제10조 고용계획	417명	70명	현재 고용 수준에서 동결

- 이후 서울시는 2025년 4월 시비분 현금지원 위약금 및 이자 1천 4백만원을

환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계약서 승인 등을 거쳐 2025년 7월 변경 계약 체결을 통해 6억원의 지원금을 미지급하였음.

- 현금지원은 기업이 당초 약정한 지원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 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기업이 투자 및 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와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T社의 계약변경 요청이 2025년 2월에 이루어졌고, 2025년 3월 외국인 투자위원회 의결과 2025년 4월 위약금 및 감액분 환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해당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이를 추경예산 감액 등으로 조정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는 연도 중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후관리 조치,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 부진, 계약변경 가능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적기에 검토하여 필요시 추경예산 감액 등의 조치를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7) 영상산업 지원

- 영상산업 지원은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 자문, 영상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울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상창작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2천 8백만원 중 30억 2천 7백만원(99.9%)이 집행됨.

< 영상산업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028	3027	3027	0	1	0.1
사 무 관 리 비	38	38	38	0	0	0.0
민 간 위 탁 금	2,789	2789	2789	0	0	0.0
시 설 비	30	29	29	0	1	3.3
민 간 위 탁 사 업 비	171	171	171	0	0	0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충무로 영상센터는 시민과 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영상자료 열람, 독립·고전영화 상영, 영상교육, 촬영장비 및 공간 대여 등을 지원하는 시민 영상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음.

< 충무로 영상센터 현황 >

- 위 치 : 중구 퇴계로 지하 214 충무로역사 내 지하 1층
- 규 모 : 약 371㎡
- 주요시설 : 아카이브, 오픈라운지, 장비보관실, 극장, 커뮤니티룸, 사무실 등
- 운영시간 : 월~토, 11:00~20:00(일요일 포함 공휴일 휴관)
- 주요기능 : 아카이브 및 열람, 교육, 장비·제작지원, 소극장, 오픈라운지 운영 등
- 장비 및 물품 : DVD(5,126편), 도서자료(2,830권), 물품(총 75종 430개)
- 공간현황

구 분	규 모	운 영 내 역
아 카 이 브	141㎡	DVD 및 영상자료 관람, 서적 열람, 센터안내 등
상 영 관	74㎡	영상자료 관람
전시실, 창작지원실	46㎡	프로·아마추어 작가 작품 소개 및 전시, 회의(세미나)
커 뮤 니 티 룸	37㎡	유료대관 및 공간지원
창작지원실, 장비실, 교육실	73㎡	회의(세미나), 장비보관, 사무공간 등

- 한편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 개관에 맞춰 충무로 영상센터를 영화센터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영화센터의 층별 공간용도가 변경(2023.8.)되면서 이관이 무산되고 영상센터의 기능을 일부만 통합한다는 전제하에 2025년 말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2024.9.)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이후 총무로 영상센터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운영예산 3억 2천만원이 증액되면서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은 중단되고 센터 운영이 재개되었음.
- 이처럼 운영 종료를 전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원상복구 설계용역까지 추진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운영 재개로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은 동 센터의 기능과 이용 수요, 서울영화센터와의 역할 차이, 시민 의견 등을 둘러싼 쟁점이 운영 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종료는 단순한 시설 정리 차원을 넘어 기존 이용자와 관련 단체, 지역 문화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바 운영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능 중복성, 대체 가능성, 이용자 수요,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동 센터의 경우 운영 종료 방침 확정 이후 철거 및 원상복구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 재개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이미 집행된 설계용역비는 실제 철거공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남게 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유사시설의 통폐합 또는 운영 종료를 추진할 경우 시설 기능, 대체시설과의 관계,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운영 종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기 전에 철거·원상복구 등 후속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8) 서울패션로드 운영

- 서울패션로드 운영은 서울 도심의 명소를 배경으로 런웨이 및 디지털 콘텐츠(화보, 영상, 패션맵)를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패션도시,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천 3백만원 중 11억 6천 2백만원(99.9%)이 집행됨.

< 서울패션로드 운영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163	1,162	1,162	0	1	0.1
행 사 운 영 비	1,163	1,162	1,162	0	1	0.1

- 동 사업은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사운영비 2천 7백만원을 감액한 후 9천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등 두 차례의 예산변경이 이루어졌음.
- 먼저 2025년 8월 12일 밀라노 현지 세일즈 지원을 위해 ‘서울패션로드 운영’의 행사운영비 2천 7백만원을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이후 2025년 10월 16일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 연계 패션쇼 개최를 위해 ‘서울패션워크 개최’의 행사운영비 9천만원을 다시 ‘서울패션로드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음.

< 서울패션로드 운영 예산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패션워크 개최	행사운영비	5,400	90	0	10-16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점등식 연계 패션쇼 개최 협조 요청(도시경관과, 9.24.) 관련 예산 확보
서울패션로드 운영	행사운영비	1,073	0	90		
서울패션로드 운영	행사운영비	1,100	27	0	08-12	하반기 '밀라노' 현지 세일즈 지원 최소예산 확보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무관리비	360	0	27		

- 예산의 변경사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집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동 사업의 경우 불과 2개월 사이에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후 다시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예산변경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있음.
- 특히 두 번째 예산변경은 계획에 없던 ‘서울패션로드 at 오간수교’ 행사를 추가 개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야외 패션쇼를 총 2회 추진하기로 한 당초 사업계획과 차이가 있음.

< 2025년 서울패션로드 운영 사업 개요 >

☐ 추진개요

- 목적: 서울의 대표적 매력 공간 활용해 이색적 패션쇼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패션 도시, 서울’ 도시브랜딩 추진
- 배경: K-팝, 드라마, 음식 등 한류 콘텐츠 전세계적 인기로 K-패션도 주목
- 내용: 서울 명소에서 야외 패션쇼 개최 및 홍보로 패션도시 이미지 구축
- 효과: K-패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서울의 대표적 명소 글로벌 관광자원화

☐ 2025년 예산: 11억 6천 3백만원

☐ 행사개요

구분	서울패션로드 at 정동	서울패션로드 at 신당	서울패션로드 at 오간수교
개최일시	2025.5.2. 16:00~19:00	2025.9.2.~9.7. 11:00~19:00	2025.10.30. 18:30
장소	덕수궁길	신당역 지하 유희공간	청계천 오간수교 하부
예산	279백만원	519백만원	82백만원
주요내용	야외패션쇼, 문화공연	동대문 기반 신진 디자이너 패션 전시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 연계 패션쇼
참여인원	3,709명	2,285명	2,899명

- 오간수교 행사는 도시경관담당관의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 연계 패션쇼 개최 협조 요청(2025.9.24.) 이후 약 1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당초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가 아니라 타 부서 행사와의 연계를 위해 단기간 내 추가된 행사임.
- 동 행사를 통해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과 동대문 패션산업을 연계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패션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동대문 기반 신진 디자이너를 홍보하려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를 타 부서 요청에 따라 단기간 내 추가 추진하고, 그 소요예산을 다른 사업의 행사운영비 변경으로 충당한 것은 행사성 사업예산의 계획성과 예산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때 연간 행사계획, 개최 횟수, 연계 가능 행사 및 세부 소요예산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타 부서 행사 수요에 따라 예산변경을 통해 추가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의 예산운용은 지양해야 할 것임.

9) 도시제조업 지원

- 도시제조업 지원은 도시제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2백만원 중 15억 3천 2백만원(95.6%)이 집행되고 7천만원(4.4%)이 불용됨.

< 도시제조업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602	1,532	1,434	98	70	4.4
사 무 관 리 비	46	45	45	0	1	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5	5	0	0	0
기 타 보 상 금	60	50	50	0	10	16.7
민간경상사업보조	224	170	170	0	54	24.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68	1,068	1,068	0	0	0
시 설 비	200	195	97	98	5	2.5

- 예산과목 중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6천만원 중 5천만원(83.3%)이 집행되고 1천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현액 2억 2천 4백만원 중 1억 7천만원(75.9%)이 집행되고 5천 4백만원이 불용됨.

- 먼저 기타보상금은 ‘서울 명장’ 기술개발장려금 지급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 편성 당시에는 우수 숙련 기술인 20명을 선정하여 1인당 3백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그러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2025년 서울 명장 선정 개요 >

☐ 목 적:

- 서울시 산업현장에 묵묵히 일해온 우수숙련기술인을 발굴하여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 지역 숙련기술인이 존경과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선정대상: 서울시 5대 특화업종 소공인 ※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 선정인원: 5명(업종별 1명)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

☐ 지원내용: 기술개발장려금 1천만원(일시금), 인증패 수여·현판 게시, 특강·전시·발표회 등 활동지원

- 사업계획 변경은 숙련기술인 지원의 명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선정 규모와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부 소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정교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집행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편성 이후 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집행잔액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 사업은 도시형제조업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을 위해 업종별·집적지별 특성에 맞는 교육, 컨설팅,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공동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액을 차등 결정하면 서울시가 국비의 일정 비율(국비의 15% 이하)을 시비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개요 >

□ 대상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신규) 및 전년도 성과평가(기존) -(신규) 운영 역량(30점), 사업추진계획(50점), 사업관리계획(20점) 평가 -(기존) 전년도 자율 및 특화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A~D등급 차등 부여 □ 사업기간: 2013년~ ※ 서울시 지원은 2016년 부터 □ 지원내용: -(중기부) 선정 등급별 지원액 차등지급(직접성 경비 60% + 간접성 경비 40%) -(서울시) 국비의 15% 범위 내 매칭 지원 □ 지원대상: 4개 센터 ※ '25년 독산 센터: D등급 평가로 협약 해지					
연번	제조업종	센터명	위 치	운영기관	사업시기
1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종로구	한국패션산업협회	2013년~
2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성북구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2015년~
3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광진구	(사)서울광진의류협회	2020년~
4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종로구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2015년~

- 서울시는 당초 5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¹¹⁾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서울독산의류제조센터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아 협약이 해지되면서 2025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 결과가 2025년 2월에 통보되었고,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2025년 4월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운 예산 규모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11) 서울봉익주얼리센터, 광진의류제조센터,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장위의류봉제센터, 서울독산의류 제조센터

-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변동사항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기에 반영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는 서울 주요 산업거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DMC 미공급 부지 매각,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5천만원 중 17억 5천 1백만원(77.9%)이 집행되고 4억 9천 8백만원이 불용됨.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250	1,751	1,671	80	498	22.1
사 무 관 리 비	741	337	284	53	403	54.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4	4	0	0	0.0
연구용역비	80	80	76	0	4	4.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	1200	1111	0	90	7.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2	52	52	0	0	0.0
시설비	173	173	145	27	2	1.0

< 2025년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개요 >

- ☐ 사업목적 : DMC 등 산업 클러스터, 특정개발 진흥지구, 산업단지 등 서울 주요산업 거점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 사업내용

 -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심의위원회 운영
 - ▶ DMC관리자문단 운영: DMC 지구단위계획 조정·관리, 공급용지의 건축계획 등 자문
 - ▶ DMC 사업용지 공급 추진
 -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2026~2035) 수립

- 동 사업은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DMC 교육첨단용지 및 홍보관용지 매각공고를 위한 신문 광고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무관리비	807	55	0	09-24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시설비	0	0	55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무관리비	752	12	0	12-19	상암 DMC 미매각용지의 매각 공고를 위한 신문광고료 지급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	0	12		

- 이중 DMC 교육첨단용지와 홍보관용지 매각공고를 위한 전용(2025.12.19.)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을 통한 신문광고료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 2백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 교육첨단용지 매각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2025년 8월 ‘교육첨단용지 공급 추진계획’ 이 수립된 이후 매각공고 절차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전용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겠음.

< DMC 교육첨단용지 매각추진 경위 >

- '04.~'16. 6차례 공급 결과 사업자 미선정, 유보지로 존치
- '25. 08. DMC 교육첨단용지 공급 추진계획 수립
- '25. 12. DMC 교육첨단 및 홍보관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5. 12. DMC 교육첨단용지 공급 공고
- '26. 03. DMC 교육첨단용지 공급 유찰

- 반면 홍보관용지는 2025년도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이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매각공고는 세입 실현을 위해 예정된 절차였음에도 신문광고료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음.

< DMC 홍보관용지 매각추진 경위 >

- '23. 10. DMC 홍보관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 방침 수립
- '23. 12. DMC 홍보관 사용 목적 완료에 따른 용도폐지('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 '25. 12. DMC 교육첨단 및 홍보관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5. 12. DMC 홍보관용지 공급 공고
- '26. 03. DMC 홍보관용지 공급 유찰

- 이에 대하여 경제실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언론 광고비를 사무관리비에서 분리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매각공고를 위한 신문광고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수요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언론 광고비의 집행방식과 이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됨.
-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절차별 소요경비와 집행 방식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변경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담당자 안내와 예산과목 검토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유의 예산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11)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5월에 개관한 시설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73억 1,711만원 중 71억 4,244만원을 집행(97.61%)하고, 1억 7,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2.39%임.

<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과학관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시립과학관	7,318	7,041	277	96.22
과학기술 진흥	6,566	6,457	109	98.34
과학관 운영 활성화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323	296	27	91.67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440	436	4	99.02
기관연계 및 홍보	60	59	1	99.04
전시실 조성 및 운영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515	489	27	94.85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418	418	0	1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60	454	6	98.66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132	132	0	100.0
메이커 페어 서울	200	200	0	100.0
홈페이지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86	80	7	92.21
성공적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3,353	3,315	38	98.87
동행로봇 발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9	129	0	100.0
서울RAIM 로봇, AI 동행매력정원 조성	450	450	0	100.0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752	584	168	78.0

- 동 기관의 2025회계연도 전체 예산 집행률은 96.22%로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나,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의 세부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일부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확인됨.

< 2025회계연도 서울시립과학관 기본경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754	587	167	22.2%
사 무 관 리 비	158	146	12	7.7%
공 공 운 영 비	537	387	150	28.0%
국 내 여 비	24	21	3	12.2%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4	4	0	0.0%
정 원 가 산 업 무 추 진 비	4	2	2	50.7%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17	17	0	0.0%
직 책 급 업 무 수 행 경 비	10	10	0	0.0%

- 기본경비 중 가장 큰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은 ‘공공운영비’로 예산 5억 3천 7백만원 중 1억 5천 1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28%에 달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운영비의 경우 과학관(본관)과 로봇과학관(분관)에 대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및 기타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데 과학관은 사용량의 감소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불용률이 높았다는 입장임.
- 그밖에 공공운영비중 기타항목은 2025년 7월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전기 버스를 12월에 폐차(매각액 50만원) 처리하면서 당초 편성되었던 차량 수리비 등을 지출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과학관의 전기버스는 수년간 잦은 고장으로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상 비효율이 더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바 있고, 수년간 운영해온 과학관에서 매년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소요 예산을 추정하지 못해 예측 곤란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나 타 산하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기관으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밀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폐차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한 관리 요인 등을 세밀하게 추계하지 못해 기본경비에서 20%가 넘는 과도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과학관은 신규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과 자산 현황, 업무 환경의 변화(온라인화 등)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하여 관행적인 예산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Ⅳ.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비비 지출 현황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판결금 지급 1억 2천 2백만원과 G밸리 근로자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금 지급 4천 4백만원 등 총 1억 6천 6백만원임.

< 경제실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공사 소송 대금 지급	배상금등	122	122	0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대금 지급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44	44	0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금 지급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사용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회계연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한정되어야 함.
-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모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지급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결 선고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예비비 지출 관련 소송 경과 >

구분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소장 접수	2024. 4. 23.	2021. 12. 21.
주요 쟁점	공사기간 425일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범위	공사기간 863일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지급 여부
판결일	2025. 7. 25.	2025. 9. 3.
판결 결과	서울시 일부 패소	서울시 일부 패소, 항소 기각
청구액	180백만원	62백만원
판결금	111백만원(이자 11백만원 별도)	34백만원(이자 10백만원 별도)
예비비 사용	122백만원	44백만원

- 다만 두 건 모두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공사비 산정을 둘러싼 공사계약 관련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기연장 사유,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접비 인정 범위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또한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소송과 같이 장기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 가능성, 예상 지급액, 지연이자 발생 가능성 등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반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비비가 사후적 대응 수단으로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서울시는 공사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결금 등 예측가능한 지출수요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V. 기금 결산

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가. 기금의 개요 및 조성·운용 현황

1) 기금 개요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도입 배경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장기간의 저리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운영됨.
- 그리고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총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수행할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2019년~2022년)하면서 펀드 운용 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¹²⁾’으로 각각 분리(2018년)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운용 목적과 구조

- 투자계정의 운용 목적은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서울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량의 정책 지원금을 투자금 형태로 원활하게 지원하고, 회수된 수익금을 이용하여 신규 벤처기업에 다시 지원하는 기업 지원 구조를 조성하는 것임.

12)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2018년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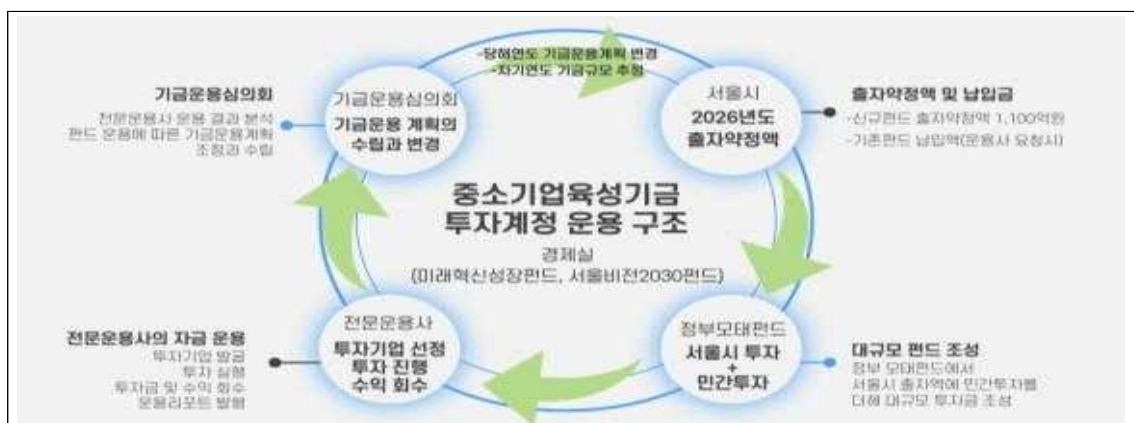
- 현재 투자계정은 펀드 조성사업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 ▶서울비전 2030펀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등 총 4가지 펀드를 조성 및 운영중에 있고, 그중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 2030펀드를 경제실이 관리·운영하고 있음.

< 경제실 소관 투자계정 펀드 운용 현황 >

펀드명	조성기간	市 출자약정액	조성액	추진부서
미래혁신성장 펀드	'19년~'22년	1,751억원	3조 6,857억원	경제실
서울비전2030 펀드	'23년~'26년	3,500억원(목표)	5조원(목표)	경제실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23년~'31년	20억원	200억원	기후환경본부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25년~'33년	30억원	131.1억원	민생노동국

- 상기 펀드는 서울시의 출자약정액과 민간투자금을 합쳐 정부 모태펀드에 대규모 자금으로 조성되며,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기반으로 공모로 선정된 전문 운용사가 투자 대상기업의 발굴, 투자실행, 자금회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정부모태펀드를 활용한 펀드투자의 경우 통상 펀드의 조성 기간과 회수기간을 각 4년씩, 총 8년간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 시기를 조정하면서 실제 펀드 운용기간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경제실) 운용구조 >



2) 조성 현황

- 투자계정은 2024년도말 조성액 575억 2천 1백만원에서 2025년에 604억 3천 9백만원을 추가 조성하고, 817억 6천 8백만원을 펀드 출자 등에 사용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361억 9천 2백만원임.

< 2025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현재액(A)	2025년 증감액			2025년 연도말 조성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57,521	△21,329	60,439	81,768	36,192

3) 운용 현황

- 투자계정의 2025년도 주요 수입 내역은 ▶ 예치금 회수 575억 2천 1백만원, ▶ 전입금 441억 1천만원, ▶ 기타사업수입 143억 8천 3백만원, ▶ 이자수입 19억 3천 8백만원, ▶ 위탁비반환수입 8백만원 등으로 이에 따른 수입 총액은 1,179억 6천만원임.
- 동 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 펀드 출자금 659억 8천 1백만원¹³⁾, ▶ 위탁사업비 1억 8천 6백만원, ▶ 기본경비 6천 2백만원, ▶ 연말 기금잔액을 시금고에 예치한 예치금 361억 9천 2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155억 3천 9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과 같은 1,179억 6천만원임.

<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수입·지출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합 계		117,960	합 계		117,960
2025년	예치금회수	57,521	2025년	출자금	65,981
	전입금	44,110		위탁사업비	186
	기타사업수입	14,383		기본경비	62
	공공예금이자수입	1,938		예치금	36,192
	위탁비반환수입	8		예수금원리금상환	15,539

13) 미래혁신성장펀드 128.7억원, 비전2030펀드 515.3억원, 녹색기업창업펀드 8.8억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7억원 등

- 동 계정은 2024년도 기금 결산 정산액 등을 반영하여 6월에 한차례, 그리고 펀드 운용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7월에 두차례 등 총 3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단위 : 백만원)

변경차수	당초	1차 변경 (2025. 6. 27.)	2차 변경 (2025. 7. 7.)	3차 변경 (2025. 7. 25.)
조성총액	85,192	112,139	112,139	112,139

- 경제실 소관 펀드 2개의 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제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의 서울 소재 벤처기업에 투자(2019년~2026년)하고 있으며, 회수기간이 도래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2023년~2030년)를 병행하고 있음.

<미래혁신성장펀드>

총 조성: 3조 6,857억원
 서울시 약정액: 1,751억원
 서울시 납입액: 1,653억원
 벤처기업 투자성과: 1,576개사 3조 1,460억원(25년 6월말 기준)
 서울 소재 투자기업 698개사 1조 2,079억원 투자
 벤처기업 투자효과: 매출 4조 4,388억원 증가, 고용 20,376명 창출

<연도별 투자금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회수연도	합계	2019~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회수금액	22,049	60	254	1,162	2,107	5,157	13,309

<연도별 회수 예정 펀드 현황>

펀드 존속기한	합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펀드 수	60개	2개	10개	17개	15개	10개	5개	1개

※ 펀드 조합 존속기간은 조합에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이 남아있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총회 전원동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그 경우 회수 예정 기한이 순연될 수 있음

- 동 펀드는 회수 기간이 도래한 펀드에서 2025년 투자금 133억 9백만원 등 총 220억 4천 9백만원을 회수하였고 펀드 존속기한(2032년) 만료까지 총 60개 펀드에서 투자금을 추가 회수할 예정임.

- 한편 미래혁신성장펀드는 4년간(2019~2022년) 총 3조 6,857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조성목표 1조 2,124억원 대비 304% 달성하였고, 기업 1,576개사에 3조 1,46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서울시 주목적 투자기업 698개사에 1조 2,07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순기능을 관내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가고자 ‘서울비전2030펀드’를 2023년부터 신규 조성 중임.
- 서울비전2030펀드의 결성목표액은 총 5조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자액은 3,500억원으로, 출자재원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 등으로 구성됨.

< 서울비전2030펀드 연차별 조성·출자 변경계획 >

(단위 : 억원)

분 야		비 율	조성목표 (출자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	50,000 (3,500)	10,650 (700)	11,750 (810)	12,500 (890)	15,100 (1,100)
업종	인공지능대전환 (2025년 신설)	10%	5,000 (300)	-	-	2,500 (150)	2,500 (150)
	디지털대전환	12%	6,000 (350)	2,000 (100)	2,500 (150)	-	1,500 (100)
	바이오	15%	7,500 (400)	1,900 (100)	1,425 (75)	1,900 (100)	1,500 (100)
	첨단제조 (2024년 신설)	10%	5,000 (500)	-	1,500 (150)	-	3,500 (350)
	창조산업 (문화콘텐츠 확대)	20%	10,000 (600)	1,500 (100)	2,550 (150)	-	5,950 (350)
기업 성장 단계	첫걸음동행 (창업지원)	9%	4,500 (450)	2,500 (200)	500 (60)	450 (50)	1,050 (140)
	스케일업	24%	12,000 (900)	2,750 (200)	2,800 (200)	-	6,450 (500)

- 서울비전2030펀드는 ▶인공지능대전환, ▶디지털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창업지원), ▶스케일업 등 7개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2025년 현재까지 총 조성 목표액 5조원 대비 3조

2,369억 4천만원(64.7%) 규모로 조성됨.

- 동 펀드는 2025년 연말까지 총 565개사에 8,793억원이 투자되었고, 매출 7,230억원 증가와 고용 3,294명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 중 서울시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은 208개사(3,038억원)로 보고됨.

<서울비전2030펀드>

총 조성: 3조 88억원(목표 5조원)
서울시 약정액: 1,785억원(목표 3,500억원)
서울시 납입액: 861억원
벤처기업 투자성과: 565개사 8,792억원
서울 소재 투자기업 208개사, 3,038억원 투자
벤처기업 투자효과: 매출 7,230억원 증가, 고용 3,294명 창출

- 한편 투자계정 중 민생노동국이 2025년부터 신규 조성 중인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서울시 출자금(투자계정) 30억원과 중소벤처기업부(한국 모태펀드) 60억원, 기타 민간자본 41.1억원 등 총 131.1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동 펀드는 서울 소재 유망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45억원(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2025년 11월 운용사에 7억원을 첫 출자 하였음.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민생노동국 소관) 개요>

- 조 합 명 : 「크립톤 지역창업생태계 라이콘 펀드」
- 운 용 사 : 주식회사 크립톤
- 조성규모 : 131.1억원 (서울시 30억, 중기부 60억, 기타 41.1억)
- 존속기간 : 8년 (투자 4년, 회수 4년)
- 출자금 납입 : 시 출자금 30억원
 - 납입방식 : 4회 분할납 ('25년 7억 / '26년 7억 / '27년 8억 / '28년 8억)
 - 납입시기 : '25년 11월 / '26년 ~ '28년 각 연도 2 ~ 3분기(추후 논의)
- 목적투자
 - 서울 소재 유망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45억원(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연 7%)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20%
- 출자 세부내역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출자비율
	총 계	13,110	100%
업무집행조합원	(주)크립톤	1,060	8.1%
유한책임조합원	서울특별시	3,000	22.9%
	***	1,000	7.6%
	***	700	5.3%
	***	500	3.8%
	***	300	2.3%
	***	300	2.3%
	***	250	1.9%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6,000	45.8%

나. 검토의견

- 과도한 예수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기금 재투자 기능 약화 우려
- 기금은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며, 최초 출자 이후에는 반복적인 투자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자체 재원만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그러나 투자계정은 펀드 출자에 필요한 초기 재원을 서울시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657억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만 155억 3천 9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2026년부터 2033년까지 갚아야 할 예수금 원리금 예상 총액이 1,332억 1천만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기존 펀드에서 자금이 회수 되더라도 이를 새로운 펀드에 출자할 재원 여력이 낮은 실정임.

< 서울비전2030펀드 예수금 원리금 예상액 >

(단위: 억원)

상환연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2033년
합계	1,332.1	266.4	324.4	321	237	122	20.7	40.6
통안기금 예수금 원금	1,290.7	252.2	313.0	313.0	232.5	120.0	20	40
통안기금 예수금 이자	41.4	14.2	11.4	8	4.5	2	0.7	0.6

- 특히 펀드 투자의 경우 시장 상황과 산업 동향에 따라 회수시기와 회수 금액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최근 모태펀드는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출자 조합의 존속기간을 대부분 1~2년 연장하고 있어 투자금 회수 시기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서울시는 투자금이 대부분 회수되는 2030년 이후에는 회수금으로 재투자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규모(원금 1,548억원, 이자 109억원)를 고려할 때 대규모 정책기금을 수년간 조성하고도 자체 투자 여력은 미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내역 및 예상액 >

('25. 12.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연말 예수잔액	이자상환	원금상환	'19년 예수금	'20년 예수금	'21년 예수금	'22년 예수금	'23년 예수금
예수액	1,656.9	-	108.9	1,548	196	402	450	400	100
기 납 부	'20~'21년	8.7	거치기간	8.7	-	조기상환	-	-	-
	'22년	50.7		11.5	39.2	39.2	-	-	-
	'23년	54.6	1,496.6	15.4	39.2	39.2	-	-	-
	'24년	55.4	1,430.4	16.2	39.2	39.2	-	-	-
	'25년	155.4	1,290.7	15.7	139.7	39.2	100.5	-	-
연 도 별 상 환 계 획	'26년	266.4	1,038.5	14.2	252.2	39.2	100.5	112.5	-
	'27년	324.4	725.5	11.4	313		100.5	112.5	100
	'28년	321	412.5	8	313		100.5	112.5	100
	'29년	237	180	4.5	232.5			112.5	100
	'30년	122	60	2	120				100
	'31년	20.7	40	0.7	20				20
	'32년	20.4	20	0.4	20				20
	'33년	20.2	0	0.2	20				20

- 따라서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의 운용’이라는 기금 본연의 존립 근거를 고려할 때 기금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
이성찬	2180-8061